

한국 경제: 과거와 현재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cho06@aks.ac.kr

매디슨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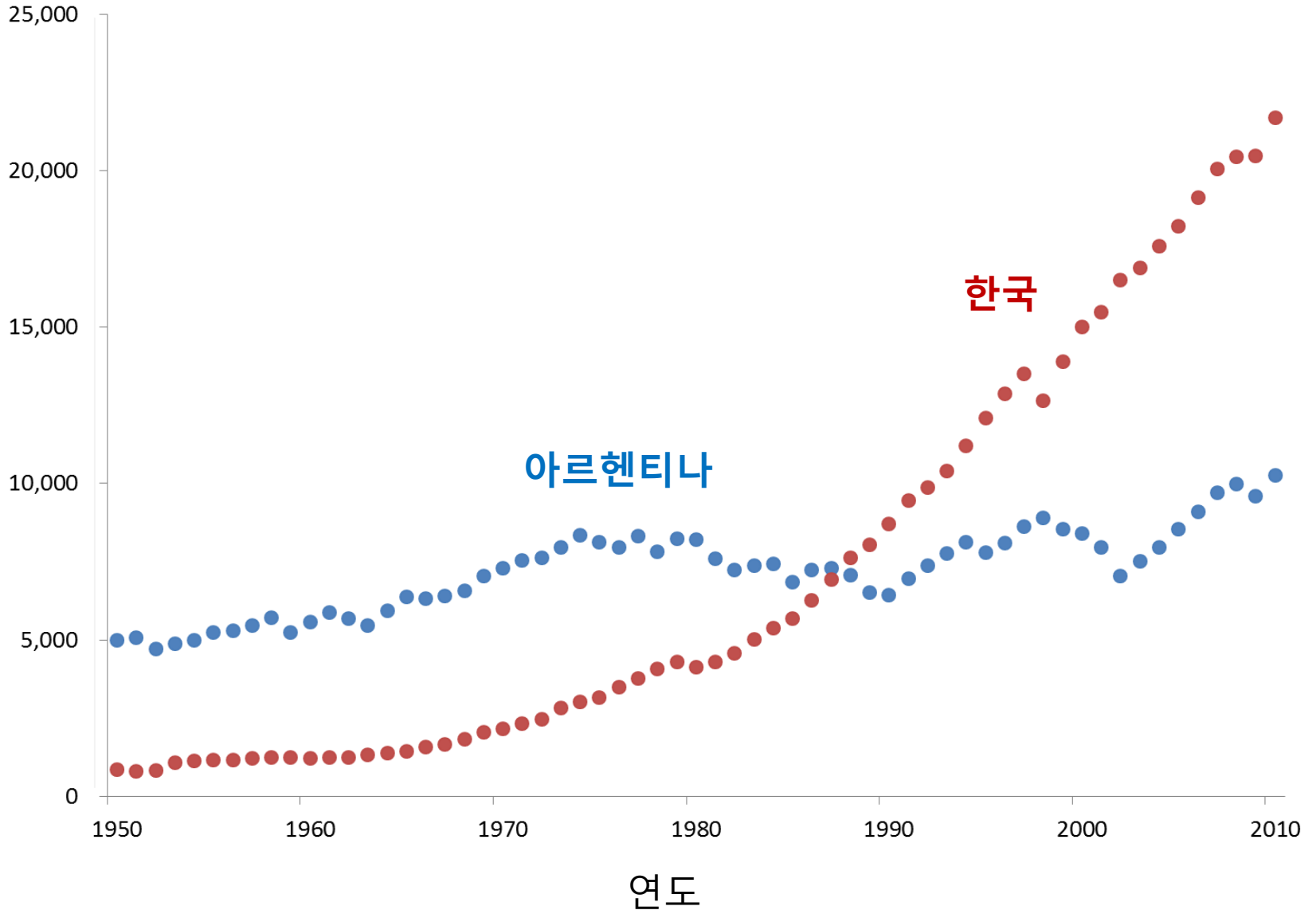
- Angus Maddison (1926-2010)
 -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 전 세계 경제통계의 장기 시계열 정비
 - 1인당 국내총생산
 - 1990년 국제 기어리-카미스 달러 기준
 - <http://www.ggdcc.net/maddison>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

- 한국: 1911-1940, 1950-2010
 - 1911-1940년간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 2차 대전 및 해방 후 기간의 공백
- 아르헨티나: 1875-2010
 -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시계열이 충실한 편
 - Bertola and Ocampo (2012)

한국,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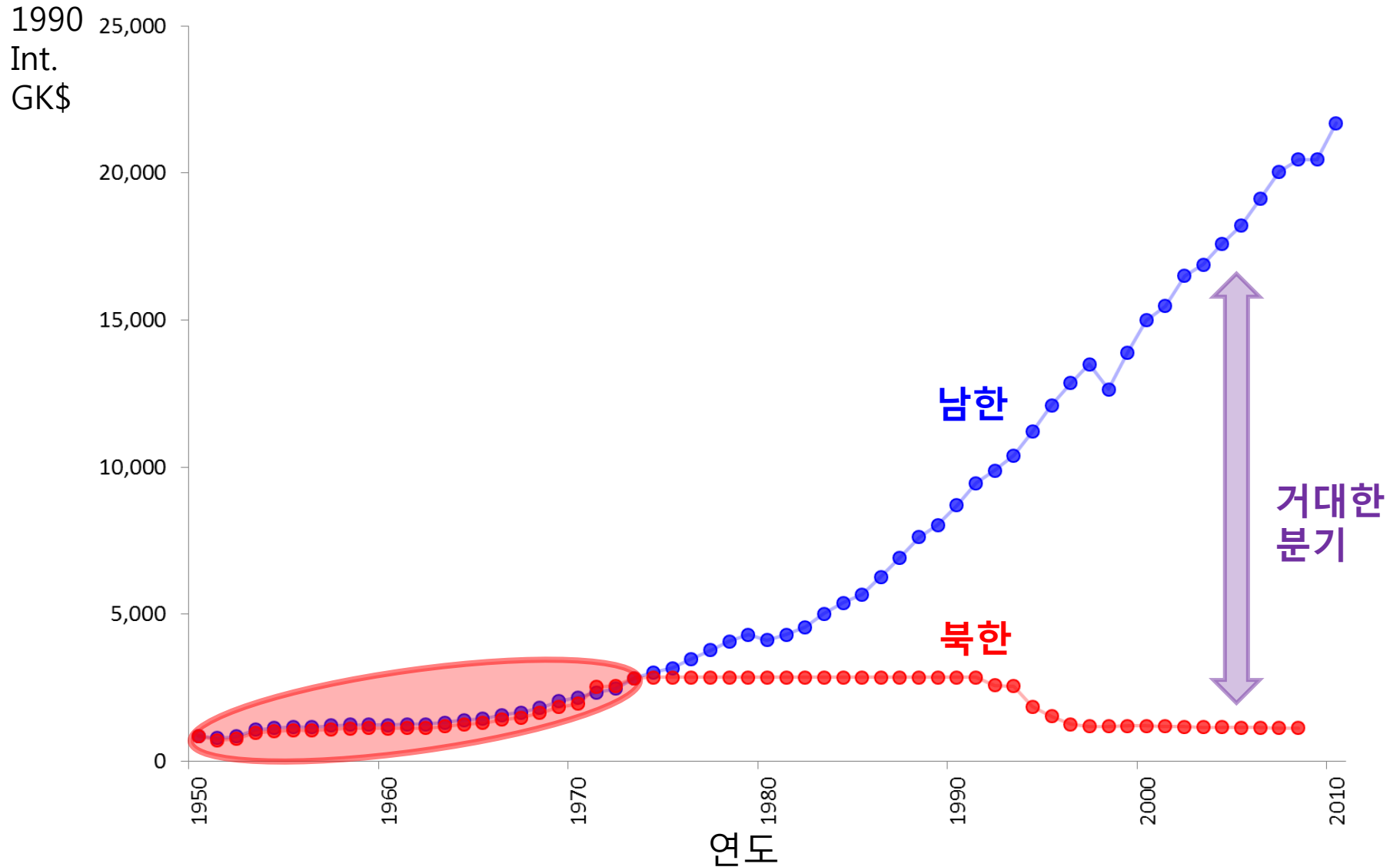
1990
Int.
GK\$



한국경제의 발전에 대한 전형적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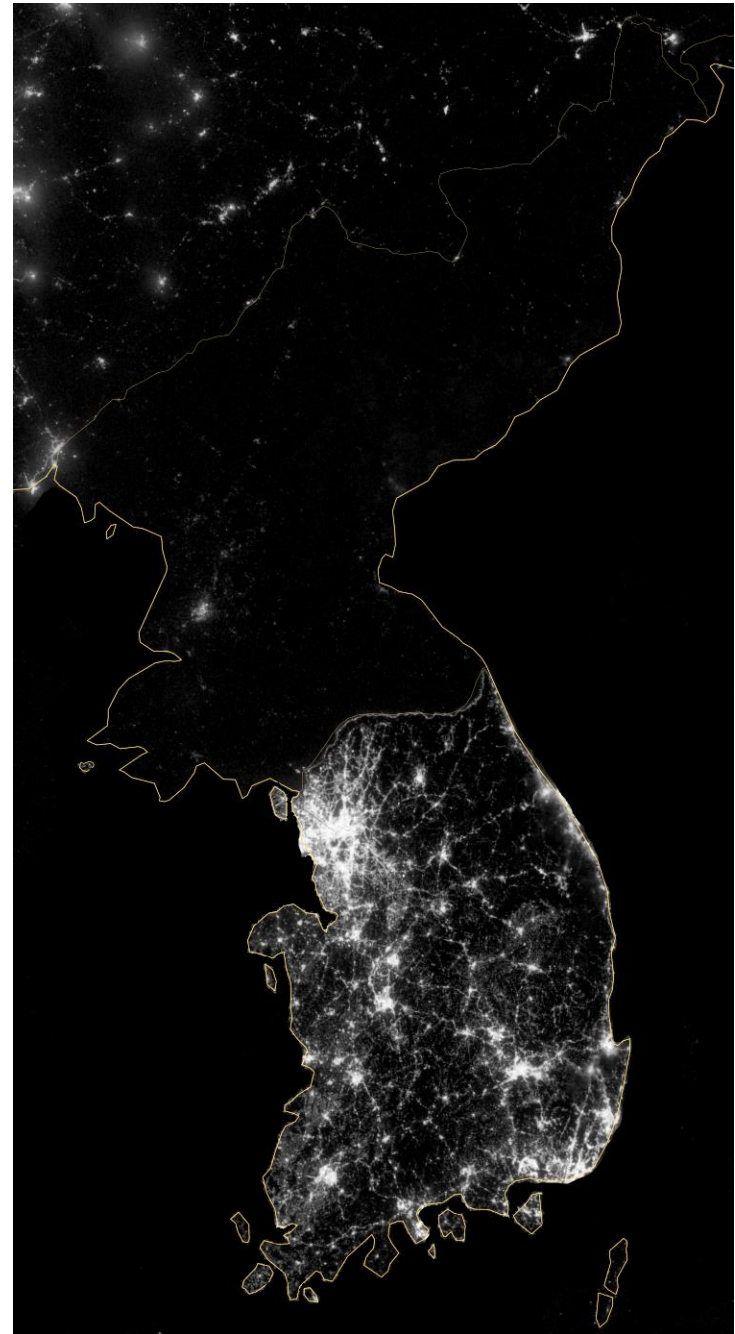
- 지리적, 민족적 특성을 강조
 - 한국의 지리적 위치
 - 한국인의 민족성 또는 기질
 - 한국의 찬란한 전통 문화
- 북한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기 어려움
 - 한반도라는 지역을 공유
 - 조선 사람이라는 유전자를 공유
 -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역량을 공유

남한과 북한, 1950-2010



극명한 대조

- 한반도의 야경
(NASA 위성사진,
2012)



한국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

- 제도의 문제
 - 남한: 시장경제, 개방경제
 - 북한: 명령경제, 폐쇄경제
- 북한과 달리 남한은 시장경제를 선택했음
 - 경제체제의 차이가 성장의 가능성을 결정

한국경제의 성장은 기적?

- 한강의 '기적'?
 - “Koreans in the South have worked their fingers to the bone to create the industrial country that we now see.” (Bruce Cumings)
- 동아시아 경제 기적의 일부
 - 신흥공업국 (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또는 용)
 -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한국경제의 성장 단계

- 1950-1960년대 초반
 -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
- 1960년대 중반-1970년대
 - 눈부신 고도성장
- 1980년대 이후
 - 경상수지 흑자 시대의 도래
 - 민주화의 실현
 - 경제위기의 시련과 극복

1950년대의 한국경제

- 대외 원조
 - 국제연합, 미국 등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음
- 수입대체 공업화
(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 이른바 '3백' 산업: 제분, 제당, 면방직
 -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개발 모형

1960년대의 변화

- 정책적 결단
 - 수출지향 전략
(EOI: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 중화학 공업화
- 고도성장의 시작
 - 1963년부터 1979년까지
 - 한국 경제는 매년 8% 이상 성장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고도성장의 요인 1) : 개방

- 수출지향 공업화
 - 일반적인 후진국의 전략과는 다른 선택
 -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결단
- 수출 진흥 확대 회의
 - 매월 개최 (1965-1979)
 - 대통령 박정희, 총 152번 개최된 회의에 147번 참석

고도성장의 요인 1) :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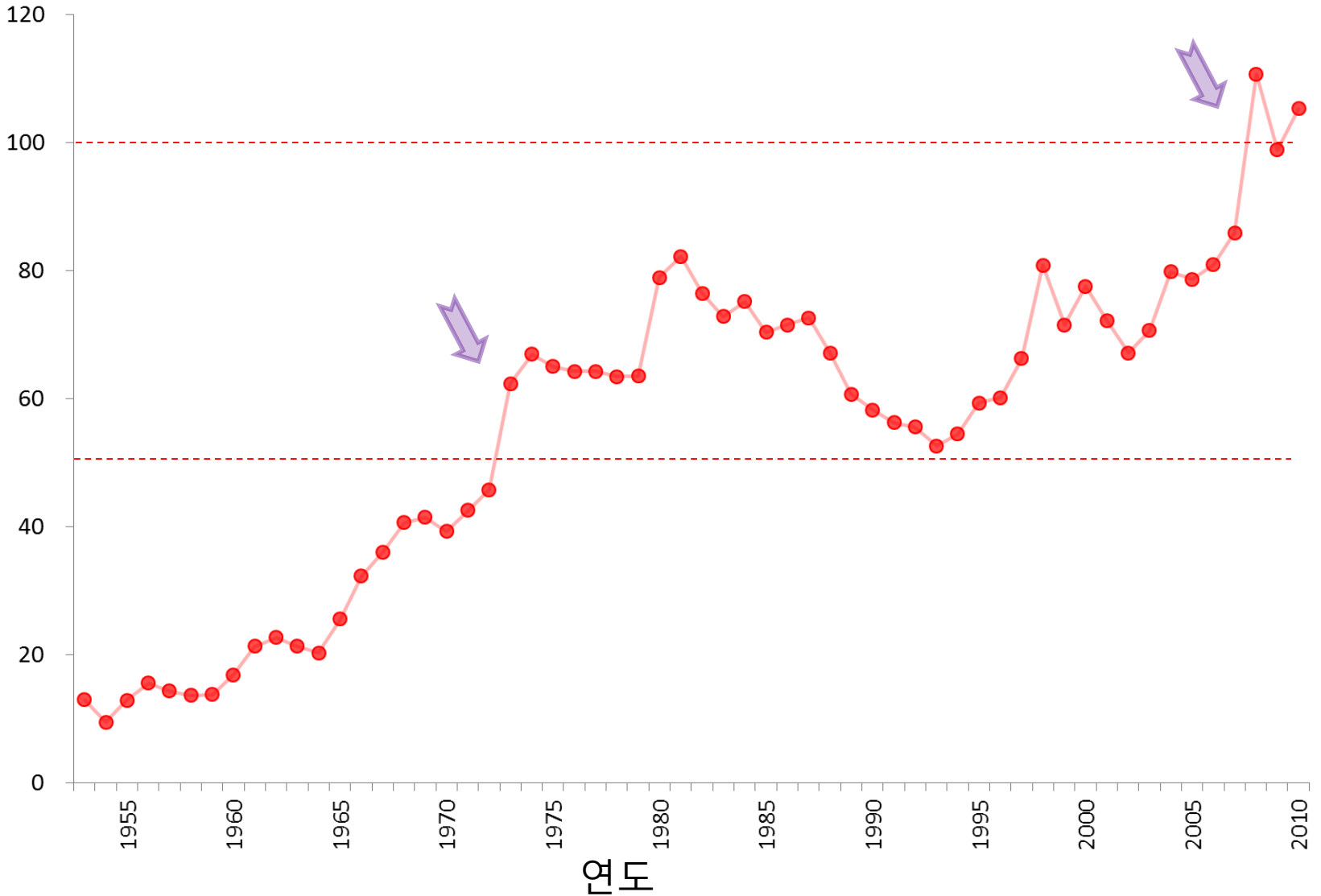
- 수출 자유 지역(Free Export Zones)
 - 마산(1970), 이리(1973)의 2개 도시
 - 2000년,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으로:
 - 현재;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김제, 울산
 - 익산자유무역지역(이리)은 2010에 해제

수출 “신화”의 달성

- 연간 수출액
 - 1964년, 1억 달러
 - 1970년, 10억 달러
 - 1977년, 100억 달러
 - 1995년, 1,000억 달러
 - ∴
 - 2011년,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

무역의존도

수출입의
대GNI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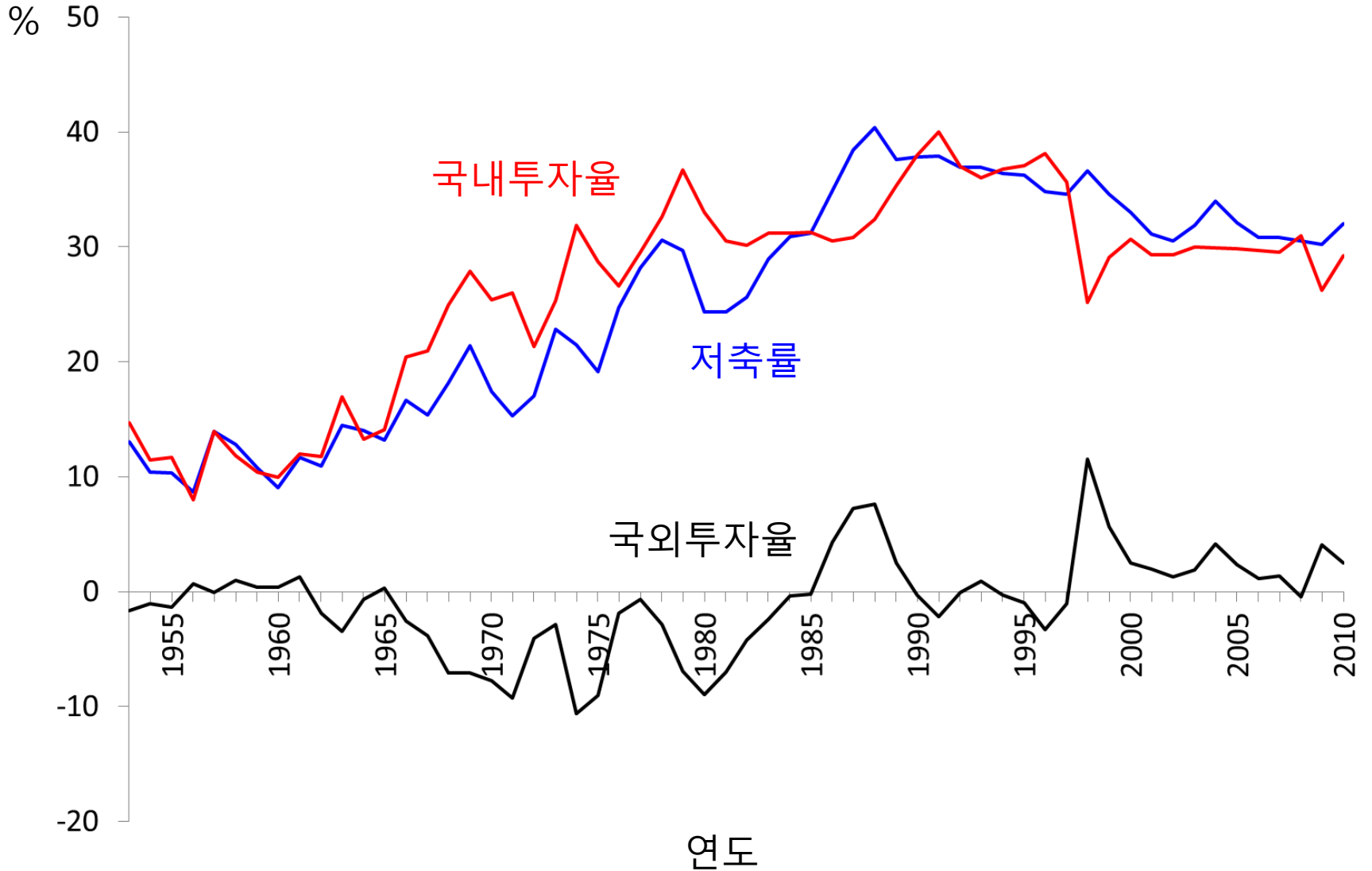
자유무역

- 다자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67)
 - 세계무역기구 (WTO, 1994)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 발효(14): 칠레(2004), 싱가포르(2006),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07), 인도(2010), 유럽연합(EU, 2011), 페루(2011), 미국(2012), 터키(2013), 호주(2014),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2015)
 - 타결(1): 콜롬비아(2012)

고도성장의 요인 2) : 투자

- 높은 투자율
 -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높은 저축률
 - 대부분 국내 저축 (+ 해외 원조/차관)
- 국외 투자
 - 1985년 이전: 대체로 마이너스(-)
 - 1985년 이후: 대체로 플러스(+)

저축률과 투자율



고도성장의 요인 3) : 정부

- 전형적인 개발국가
 -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 개발독재
 - 민족주의와의 결합: '자립경제'와 '조국 근대화'
- 정부의 역할
 - 기획처(1948)→부흥부(1955)→경제기획원(1961)
 - 수출진흥확대회의
 - 월간경제동향보고 (1965.1-1979.9, 137회)

경제개발5개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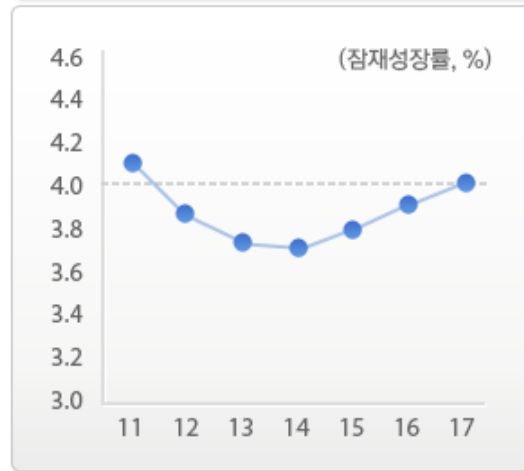
- 제1차: 1962-66
- 제2차: 1967-71
- 제3차: 1972-76
- 제4차: 1977-81
- 제5차: 1982-86
- 제6차: 1987-91
- 제7차: 1992-96

경제혁신3개년계획: 20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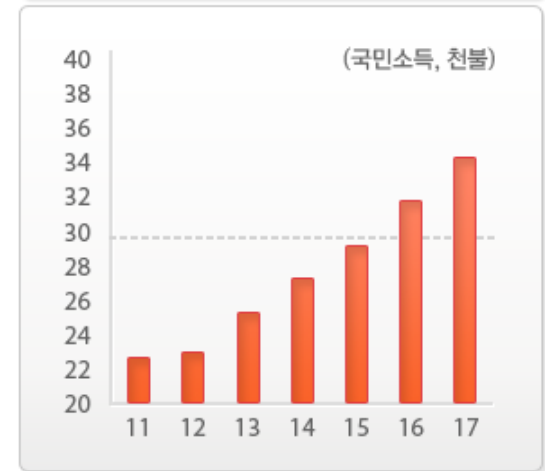
고용률 70% 달성



4%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경제혁신포털, <http://www.economy.go.kr>)

새마을 운동

- 새마을 운동: 1970-
 - 투자 금액의 51%는 정부가, 49%는 농민이
 - 농가 소득의 증대
 -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
-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 다수확 신품종 "통일벼"의 생산

고도성장의 요인 4) : 인구

- 인구구조의 변천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 취업구조의 변화
 - 농업 중심에서 비농업 중심으로
 - 이촌향도 (離村向都)
 - 농업의 기계화
 - 중산층의 형성 → 민주화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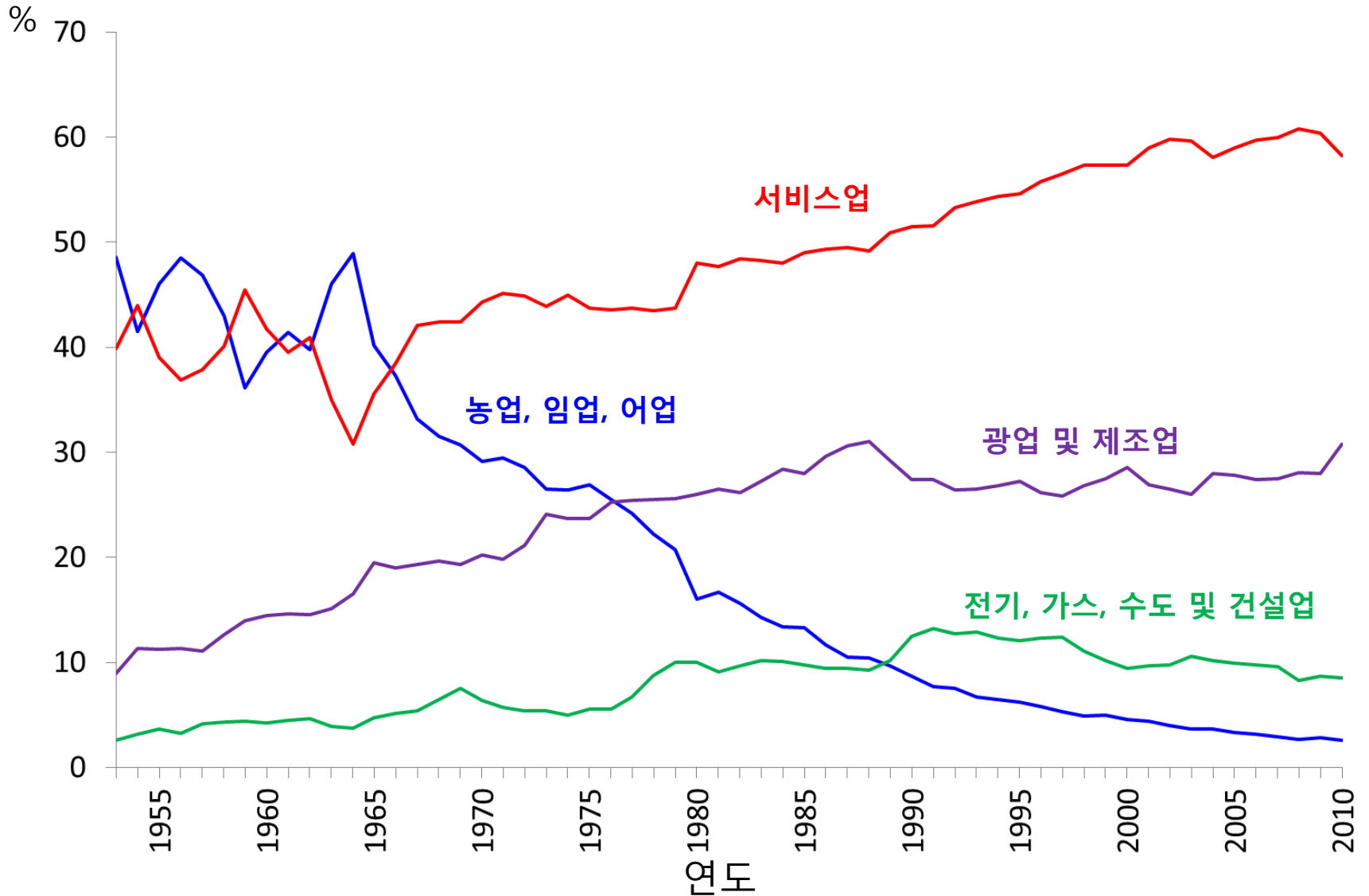
인적 자본

- 교육혁명: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도입
 - 이승만 정부, '교육입국(教育立國)'
- 낮은 문맹률
 - 1945년 해방 당시, 77.8%
 - 현재, 1.7% (사실상 0%)
- 높은 교육열
 - 대학 진학률, 70-80%
 - 직업 교육은 천시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결과

- 1) 산업구조의 변화
- 2)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
- 3) 산업화 이후 민주화

고도성장의 결과 1) : 산업구조의 변화 (국내총생산의 구성)



고도성장의 결과 2) :

주요 산업에서의 세계적 경쟁력

- 조선
- 자동차
- 철강
- 정유
- 전자
- 건설

조선



현대중공업

World shipbuilding market share by countries (2012)^[21]

Rank	Country	Combined GT	%
1	China	67,000,000	45%
2	South Korea	53,000,000	29%
3	Japan	28,000,000	18%
4	Philippines	6,000,000	1%
5	European Union	4,500,000	1%
	Rest of the world	11,000,000	6%

World shipbuilding market share by countries (Q1 2015)^[26]

Rank	Country	Compensated GT	%
1	South Korea	2,310,000	41.0%
2	Japan	1,620,000	28.9%
3	China	1,350,000	24.0%
	Rest of the world	340,000	6.1%

GT: Gross tonnage

자동차

아산



체코



터키

현대자동차

러시아

Rank ⇅	Country/Region ⇅	2013 [2] ⇅
—	World	87,663,968
1	China	22,116,825
—	European Union	16,183,846
2	United States	11,066,432
3	Japan	9,630,181
4	Germany ^[21]	5,718,222
5	South Korea	4,521,429
6	India	3,880,938
7	Brazil	3,712,380
8	Mexico	3,052,395
9	Thailand	2,457,057
10	Canada	2,379,806

철강

Crude steel production (million metric tons):

Rank (2014) ⇅	Country/Region ⇅	2014 ⇅
—	World	1670.1
1	 People's Republic of China	822.70
-	 European Union	169.30
2	 Japan	110.67
3	 United States	88.17
4	 India	87.29
5	 South Korea	71.54
6	 Russia	71.46
7	 Germany	42.94
8	 Turkey	34.04
9	 Brazil	33.90
10	 Ukraine	27.17

Top steel net exporters in 2013^[7]

Rank	Country	Mt
1	China	46.8
2	Japan	37.1
3	Ukraine	23.0
4	Russia	17.1
5	South Korea	9.9
-	European Union ^[8]	7.9
6	Brazil	4.4
7	Taiwan	3.8
7	Belgium	3.8
9	Austria	3.7
10	Turkey	2.8
11	Netherlands	2.6
11	Slovakia	2.6
13	India	2.3



포스코특수강

정유



World's largest refineries

Name of Refinery	Location	Barrels per Day
Jamnagar Refinery (Reliance Industries)	Jamnagar, India	1,240,000
SK Energy	Ulsan, South Korea	1,120,000
Paraguana Refinery Complex (PDVSA)	Paraguana, Falcon, Venezuela	940,000
GS Caltex Yeosu Refinery (GS Caltex)	Yeosu, South Korea	730,000
S-Oil Onsan Refinery (S-Oil)	Ulsan, South Korea	670,000
ExxonMobil	Singapore	605,000
Port Arthur Refinery (Motiva Enterprises)	Port Arthur, Texas, USA	600,250
Baytown Refinery (ExxonMobil)	Baytown, TX, USA	560,500
Ras Tanura Refinery (Saudi Aramco)	Saudi Arabia	550,000
Garyville Refinery (Marathon Petroleum)	Garyville, LA, USA	522,000

SK에너지

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Rank 2013	Rank 2012	Company	Country of origin	Revenue (million \$ USD)	2013/2012 changes	Market share
1	1	Intel Corporation(1)	USA	46 960	-1.0%	14.8%
2	2	Samsung Electronics(2)	South Korea	33 456	+7.0%	10.5%
3	3	Qualcomm	USA	17 341	+31.6%	5.5%
4	10	Micron Technology(3)	USA	14 168	+109.2%	4.5%
5	7	SK Hynix	South Korea	13 335	+48.7%	4.2%
6	5	Toshiba Semiconductor	Japan	12 459	+11.9%	3.9%
7	4	Texas Instruments	USA	11 379	-5.5%	3.6%
8	9	Broadcom	USA	8 121	+3.5%	2.6%
9	8	STMicroelectronics	France Italy	8 076	-4.9%	2.5%
10	6	Renesas Electronics(4)	Japan	7 822	-15.3%	2.5%

전자: 액정 표시 장치



LG디스플레이

LCD glass panel suppliers

Panel type	Company	Remarks	major TV makers
IPS-Pro	Panasonic	Solely for LCD TV markets and known as IPS Alpha Technology Ltd. ^[15]	Panasonic, Hitachi, Toshiba
H-IPS & P-IPS	LG Display		LG, Philips, BenQ
S-IPS	Hannstar	They also produce other type of TFT panels such as TN for OEM markets such as mobile, monitor, automotive, portable AV and industrial panels.	
	Chunghwa Picture Tubes, Ltd.		
	AU Optronics		
S-MVA	Chi Mei Optoelectronics		
S-PVA	S-LCD (Samsung/Sony joint venture)		Samsung, Sony
AFFS	Samsung	For small and medium size special projects.	
ASV	Sharp Corporation	LCD TV and mobile markets	Sharp, Sony
MVA	Sharp Corporation	Solely for LED LCD TV markets	Sharp

전자: 휴대 전화



Galaxy S6

Top Five Worldwide Total Mobile Phone Vendors, 2013			
Rank	Manufacturer	Gartner ^[22]	IDC ^[23]
1	Samsung	24.6%	24.5%
2	Nokia	13.9%	13.8%
3	Apple Inc.	8.3%	8.4%
4	LG	3.8%	3.8%
5	ZTE	3.3%	-
5	Huawei	-	3.0%
	Others	34.0%	46.4%

Market share of top-five worldwide mobile phone vendors, Q2 2015		
Rank	Manufacturer	Strategy Analytics report ^[21]
1	Samsung	20.5%
2	Apple Inc.	10.9%
3	Huawei	7.0%
4	Microsoft	6.4%
5	Xiaomi	4.6%
	Others	50.6%

건설

구분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					
	2013년		2012년		2011년	
순위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1	U.S.A.	100.0	U.S.A.	100.0	U.S.A.	100.0
2	China	77.2	China	88.0	China	91.4
3	Germany	73.5	Germany	78.0	Italy	81.1
4	France	68.1	Italy	76.5	U.K.	79.1
5	Spain	67.9	Austria	75.4	Germany	79.0
6	U.K.	67.9	Spain	74.7	France	77.9
7	S. Korea	67.8	S. Korea	73.8	Netherlands	76.2
8	Italy	67.0	France	73.6	Australia	74.8
9	Japan	65.4	U.K.	72.9	S. Korea	73.7
10	Austria	64.6	Japan	71.6	Belgium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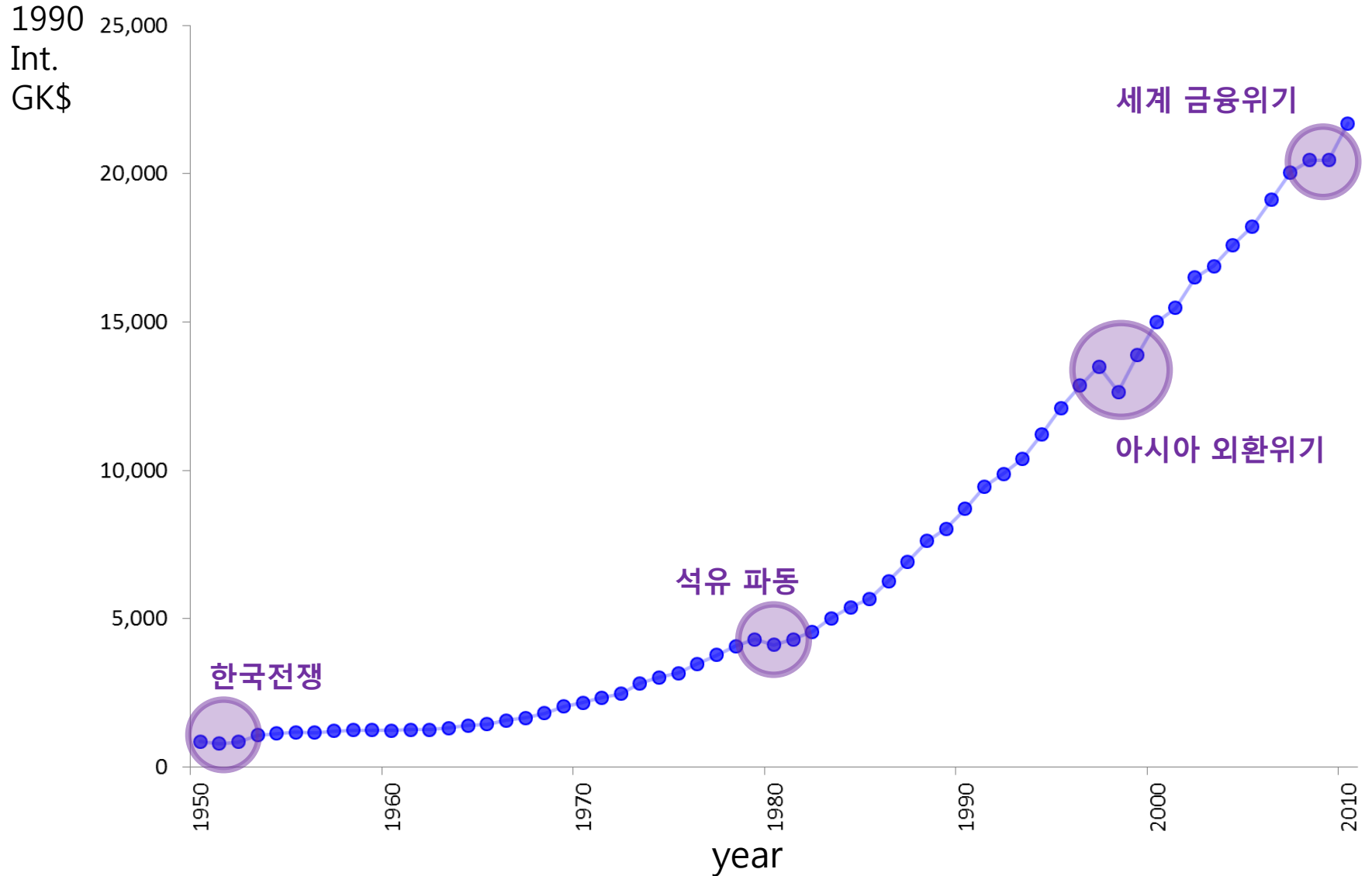
고도성장의 결과 3) : 산업화 이후의 민주화

-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국가
 - 60년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 이룩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한국경제에 닥친 시련과 극복

- 고도성장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경제에 시련은 없었나?
 - 대부분의 시련은 외생적
- 시련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갔나?

성장 과정에 닥친 시련



1997 아시아 외환위기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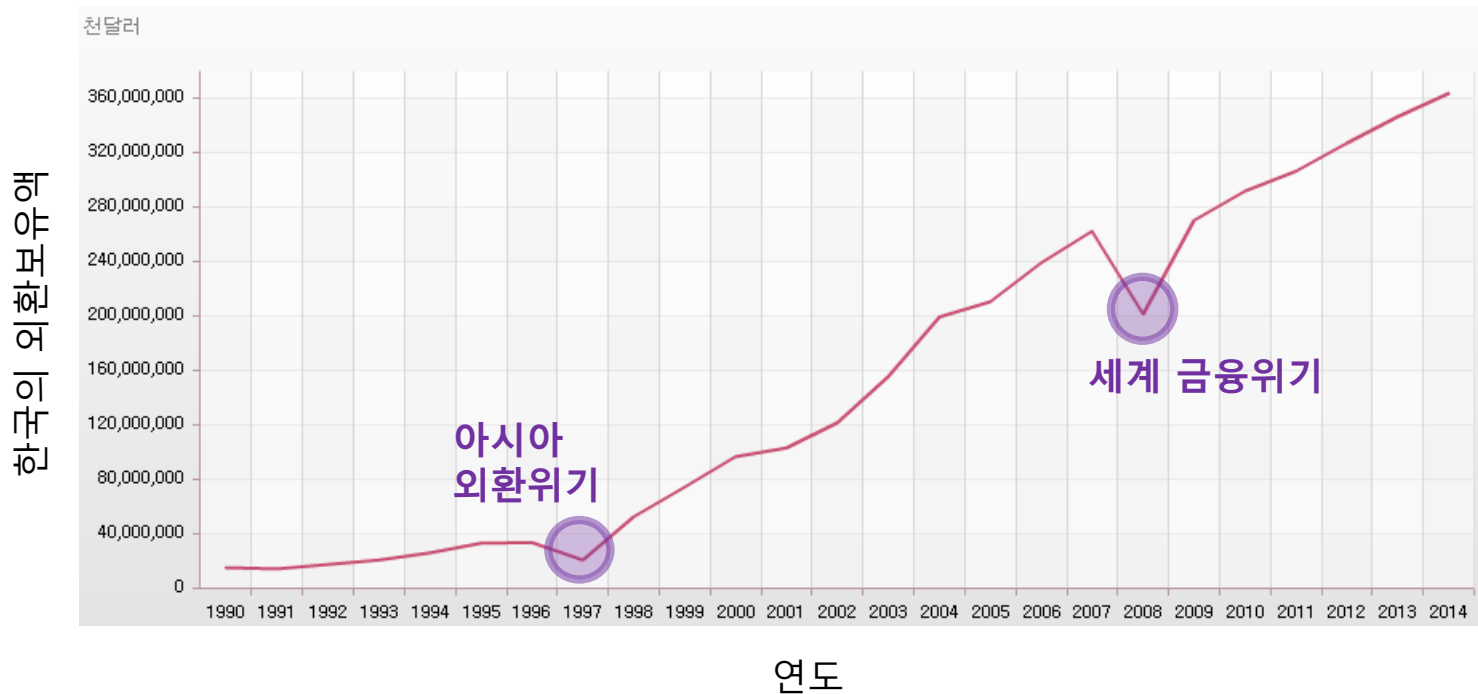
Currency	Exchange rate (per US\$1) ^[47]		Change
	June 1997	July 1998	
Thai baht	24.5	41	▼ 40.2%
Indonesian rupiah	2,380	14,150	▼ 83.2%
Philippine peso	26.3	42	▼ 37.4%
Malaysian ringgit	2.5	4.1	▼ 39.0%
South Korean won	850	1,290	▼ 34.1%

Country	GNP (US\$1 billion) ^[47]		Change
	June 1997	July 1998	
Thailand	170	102	▼ 40.0%
Indonesia	205	34	▼ 83.4%
Philippines	75	47	▼ 37.3%
Malaysia	90	55	▼ 38.9%
South Korea	430	283	▼ 34.2%

외환위기 이후

- 기업 구조조정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금융시장 재편
 - 외국계 금융기관
- 외환보유액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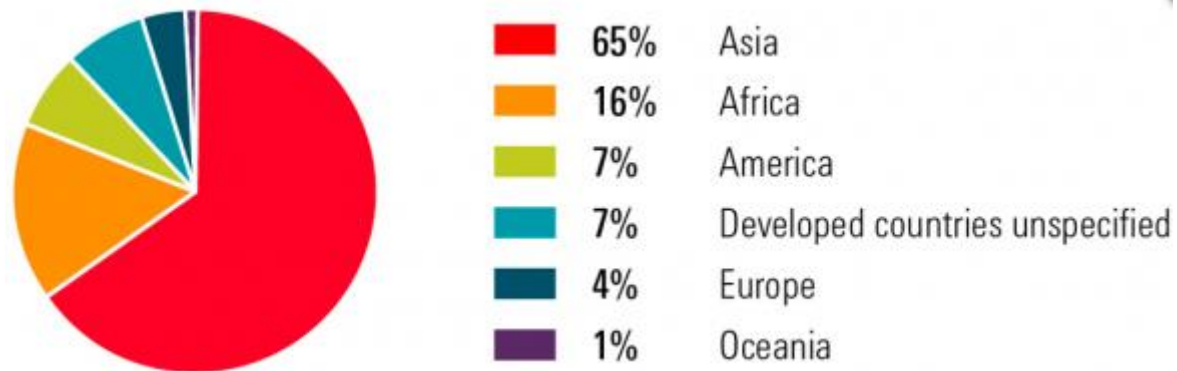
Rank ⇅	Country ⇅	Foreign exchange reserves (Millions of US\$) ⇅	Figures as of ⇅
1	 China ^[4]	3,200,000	March 2016 ^[1]
2	 Japan	1,248,107	Jan 2016 ^[2]
-	 ASEAN	754,287	~2016 (sum of references listed here)
-	 Europe (Eurozone)	720,159	Jan 2016 ^[3]
3	 Switzerland	604,911	Jan 2016 ^[4]
4	 Saudi Arabia	602,032	Jan 2016 ^{[5][6][7]}
5	 Republic of China (Taiwan)	425,978	Jan 2016 ^{[5][8][9]}
6	 Russia	386,900	Mar 18, 2016 ^{[10][11][12]}
7	 South Korea	365,760	Feb 2016 ^{[5][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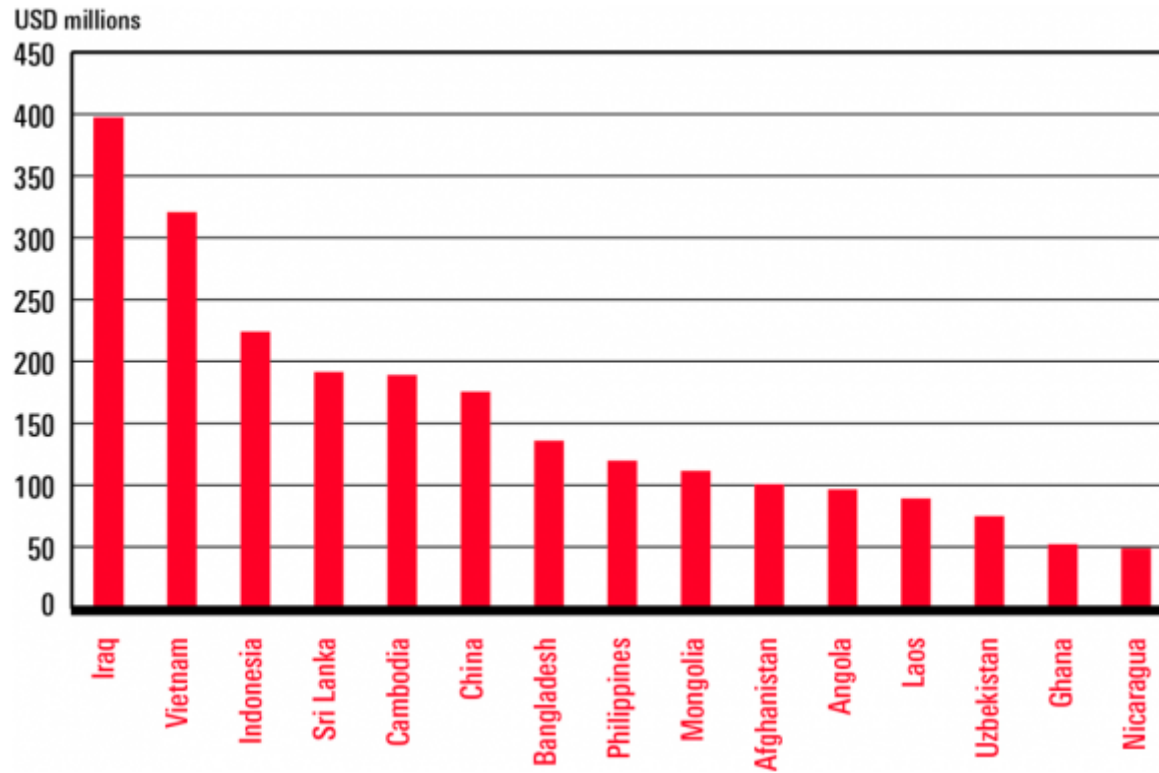
선진국으로 가는 길?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96)
- 개발원조위원회 (DAC, 2009)
 - from a recipient to a donor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1991)
- 주요 20개국 (G20)
 - 정상회의 개최 (2010, 서울)

Korean ODA by region (2010)



Top Recipient Countries (sum 2000-2009)



당면 과제

- 분단 상황
 - 국방 문제 (핵 위협, 국지적 도발, 국방비 등)
 - 통일 문제 (가능성, 비용 문제 등)
- 인구 변천
 - 저출산과 고령화
 -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 증대
 -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단일민족 신화를 넘어)

당면 과제

- 사회 통합 문제
 - 양극화 (소득 분배의 불균형)
 - 사회 갈등 (보수와 진보, 지역간 대립 등)
 - 선성장 후분배? 선분배 후성장?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복지국가로의 이행 방향 (보편적/선별적)
 - 재원 마련과 세수 확보의 문제